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생산·소비·투자 전 부문에서 증가

○ 2005년 11월 산업활동은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 지속으로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2.2%, 9.7% 증가하였고, 도·소매판매는 5.1%, 설비투자는 6.9% 증가하였음.

- 11월 제조업 생산은 섬유, 사무회계용 기계를 제외한 반도체(45.8%), 자동차(14.1%), 영상음향통신(15.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 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가 증가하여 6.9% 증가함(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등의 증가와 도소매업의 호전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였음(그림 2 참조).
- 도·소매판매는 도매업(4.4%), 소매업(4.1%), 자동차 및 차량연료소매(10.2%)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1%로 전월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3				2004				11월	2005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1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6.1	3.1	3.0	7.7	11.3	12.7	11.4	6.7	9.9	3.8	4.0	6.9	12.2
	제조업 생산	5.7	2.9	3.0	8.0	11.9	13.2	11.6	7.0	10.2	3.5	3.9	7.0	12.6
	출 하	4.4	2.8	2.5	6.7	10.0	10.8	10.1	5.8	9.2	3.5	3.5	6.1	9.7
	수 출	7.3	9.9	11.2	17.6	21.9	23.4	20.4	15.0	19.4	10.9	6.8	8.0	14.0
	내 수	2.8	-0.7	-2.1	0.9	3.7	3.8	4.1	0.3	3.0	-1.2	1.4	4.6	6.7
	서비스업 생산	1.9	0.9	0.5	0.6	2.1	0.9	-0.5	-0.2	-0.4	0.7	2.4	5.3	5.8
소비	도소매 판매	1.7	-1.5	-2.3	-2.0	-0.2	-0.6	-1.1	-1.4	-1.4	-1.0	2.6	3.6	5.1
투자	설비투자	2.6	0.2	-6.4	-5.3	-2.0	3.2	3.8	-0.1	3.0	4.0	1.4	0.5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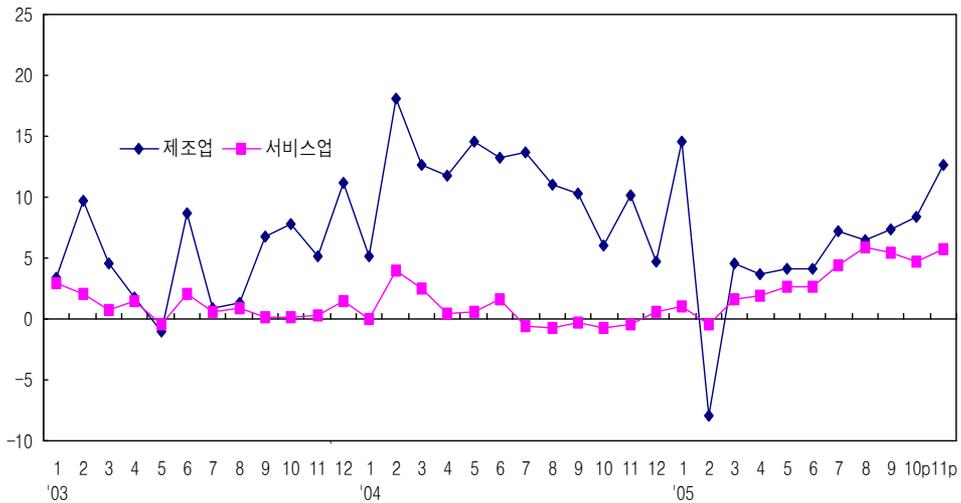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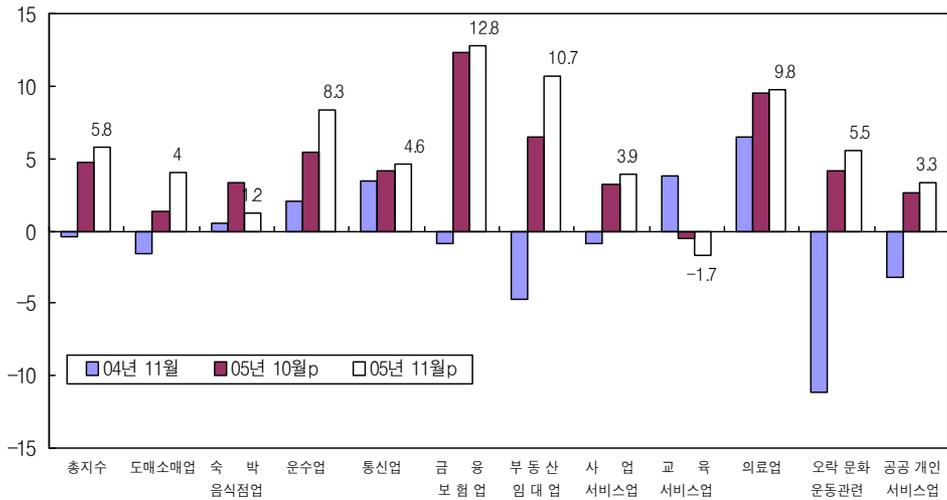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05. 12.

——, 『2005년 11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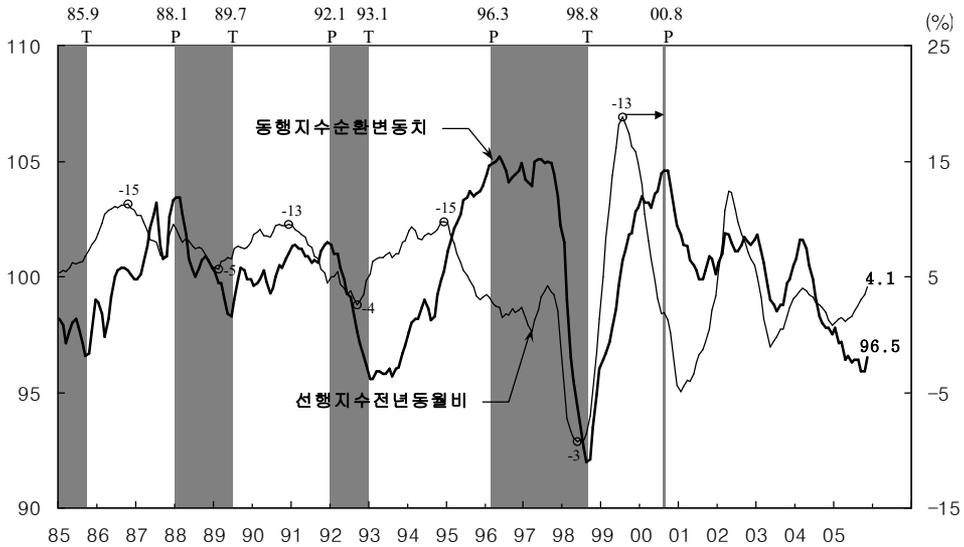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0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05. 12.

고용 동향

- ◆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 62.0%, 취업자증가율 1.3%, 실업률 3.7% 기록
- 2005년 경제활동인구는 23,743천명으로 전년대비 326천명(1.4%)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하였고, 고용률도 59.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
- 2005년 취업자는 22,856천명으로 전년대비 299천명(1.3%)이 증가하였는데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남성: 137천명(1.0%), 여성: 162천명(1.7%))(그림 4 참조).
- 2005년 실업자는 887천명으로 전년대비 27천명(3.1%)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동일함.
- 2005년의 고용동향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감소 등 2004년에 비해 그다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2005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2,921 (2.0)	22,957 (0.2)	23,417 (2.0)	23,575 (1.8)	23,394 (1.9)	23,743 (1.4)	23,853 (1.2)	23,526 (0.6)
참가율	62.0	61.5	62.1	62.3	61.8	62.0	62.0	61.1
취업자	22,169 (2.8)	22,139 (-0.1)	22,557 (1.9)	22,733 (1.8)	22,495 (1.8)	22,856 (1.3)	23,025 (1.3)	22,699 (0.9)
고용률	60.0	59.3	59.8	60.1	59.4	59.7	59.8	59.0
실업자	752	818	860	842	899	887	827	827
실업률	3.3	3.6	3.7	3.6	3.8	3.7	3.5	3.5
비경제활동인구	14,042 (-0.5)	14,383 (2.4)	14,300 (-0.6)	14,273 (-0.3)	14,477 (-0.4)	14,557 (1.8)	14,634 (2.5)	14,97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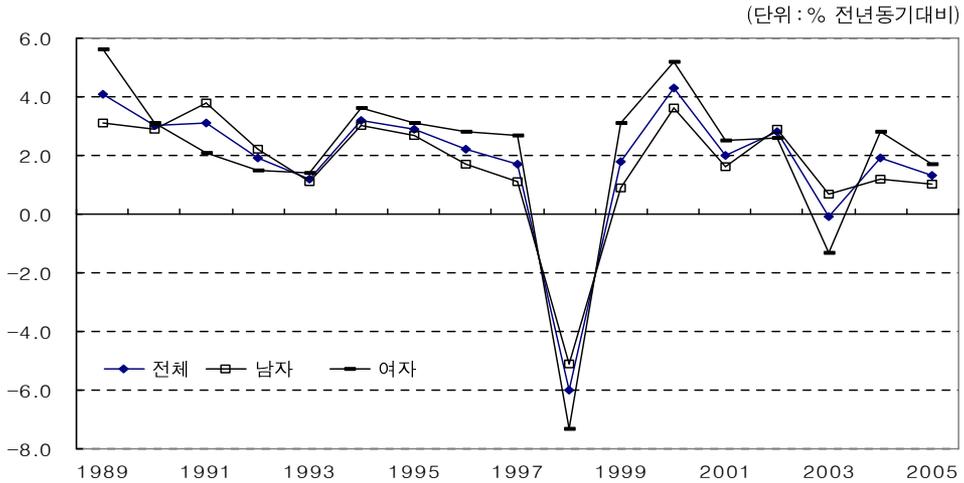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12월 고용동향』, 2006. 1.

- 비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초로 50%를 넘어서긴 했지만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고, 경제활동인구의 증가(326천명)가 취업자 증가(299천명)를 넘어서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KOSIS.

-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222천명, 8.6%)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25천명, 25%)의 증가는 체감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취업자 증가

○ 2005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6천명, 5.6%), 전기·운수·통신·금융업(59천명, 2.7%)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56천명, -1.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6천명, -1.0%), 건설업(-6천명, -0.3%) 등에서는 감소하였음.

- 2005년 중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내수회복세를 반영하여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주요 고용창출원으로 작용함.
-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9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하반기에 약세를 보였으며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가 감소가 지속됨(그림 5 참조).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를 세부산업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44천명, 9.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43천명, 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53천명, 8.8%), 교육서비스업(62천명, 4.1%) 등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2005		2005	200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산업	22,169 (2.8)	22,139 (-0.1)	22,557 (1.9)	22,733 (1.8)	22,495 (1.8)	22,856 (1.3)	23,025 (1.3)	22,699 (0.9)
농림어업	2,069 (-3.7)	1,950 (-5.8)	1,825 (-6.4)	1,789 (-4.9)	1,549 (-1.7)	1,815 (-0.5)	1,754 (-2.0)	1,458 (-5.9)
제조업	4,241 (-0.6)	4,205 (-0.9)	4,290 (2.0)	4,296 (1.2)	4,261 (0.1)	4,234 (-1.3)	4,219 (-1.8)	4,220 (-1.0)
건설업	1,746 (10.2)	1,816 (4.0)	1,820 (0.2)	1,864 (0.6)	1,843 (-0.5)	1,814 (-0.3)	1,833 (-1.7)	1,765 (-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98 (2.1)	5,852 (-2.4)	5,862 (0.2)	5,853 (0.0)	5,886 (-0.3)	5,806 (-1.0)	5,812 (-0.7)	5,846 (-0.7)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5,940 (7.2)	6,139 (3.4)	6,558 (6.8)	6,711 (6.1)	6,723 (6.3)	6,923 (5.6)	7,098 (5.8)	7,083 (5.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57 (0.7)	2,160 (0.2)	2,187 (1.2)	2,205 (2.4)	2,218 (2.4)	2,246 (2.7)	2,295 (4.1)	2,31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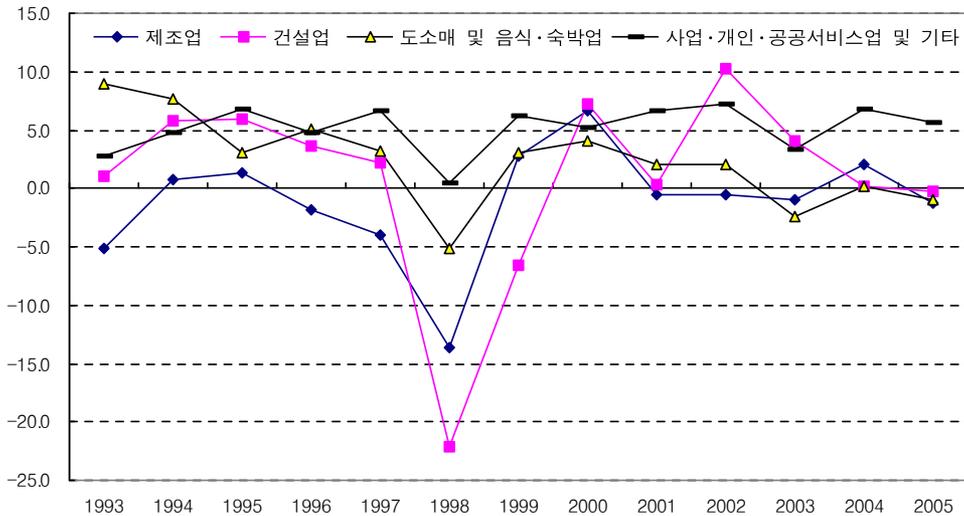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12월 고용동향』, 2006. 1.

〔그림 5〕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임시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 증가

- 2005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671천명으로 전년대비 8천명 (0.1%)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185천명으로 전년대비 291천명(2.0%) 증가
 - 비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자영업주(62천명, 1.0%)의 증가에서 기인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92천명, 3.8%)와 일용근로자(24천명, 1.1%)에서는 증가를 보였으며 임시근로자(-26천명, -0.5%)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보임 (그림 6 참조).
- 2005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794천명으로 전년대비 222천명(8.6%),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730천명으로 57천명(0.3%)이 증가하여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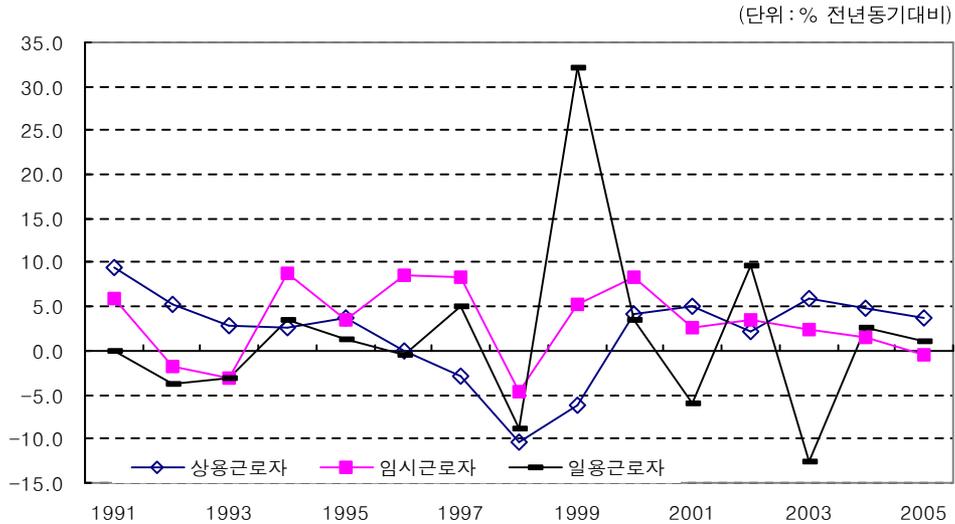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2005		2005	200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22,169 (2.8)	22,139 (-0.1)	22,557 (1.9)	22,733 (1.8)	22,495 (1.8)	22,856 (1.3)	23,025 (1.3)	22,699 (0.9)
비임금근로자	7,988 (0.9)	7,736 (-3.1)	7,663 (-0.9)	7,631 (-1.5)	7,385 (-1.2)	7,671 (0.1)	7,677 (0.6)	7,426 (0.6)
자영업주	6,190 (2.3)	9,043 (-2.4)	6,110 (1.1)	6,126 (0.2)	6,017 (0.5)	6,172 (1.0)	6,184 (0.9)	6,072 (0.9)
무급가족 종사자	1,797 (-3.5)	1,694 (-5.7)	1,553 (-8.3)	1,505 (-8.0)	1,369 (-7.8)	1,499 (-3.5)	1,493 (-0.8)	1,355 (-1.0)
임금근로자	14,181 (3.8)	14,402 (1.6)	14,894 (3.4)	15,102 (3.6)	15,109 (3.3)	15,185 (2.0)	15,348 (1.6)	15,273 (1.1)
상용근로자	6,862 (2.2)	7,269 (5.9)	7,625 (4.9)	7,781 (5.4)	7,776 (4.9)	7,917 (3.8)	7,984 (2.6)	7,978 (2.6)
임시근로자	4,886 (3.4)	5,004 (2.4)	5,082 (1.6)	5,026 (-0.3)	5,076 (0.6)	5,056 (-0.5)	5,122 (1.9)	5,147 (1.4)
일용근로자	2,433 (9.7)	2,130 (-12.5)	2,188 (2.7)	2,295 (6.5)	2,258 (4.2)	2,212 (1.1)	2,242 (-2.3)	2,148 (-4.9)
36시간 미만	2,331 (8.4)	2,417 (3.7)	2,572 (6.4)	2,502 (5.6)	2,757 (4.7)	2,794 (8.6)	2,624 (4.9)	2,904 (5.3)
36시간 이상	19,597 (2.1)	19,438 (-0.8)	19,673 (1.2)	20,000 (1.4)	19,494 (1.3)	19,730 (0.3)	20,187 (0.9)	19,571 (0.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12월 고용동향』, 2006. 1.

[그림 6]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KOSIS.

◆ 청년층(15~29세), 대졸 이상의 실업률 감소

○ 2005년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에서 감소하고 그 외의 연령 범주에서는 증가

- 2005년 청년층(15~29세)에서의 실업자는 387천명으로 25천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8.0%로 0.3%포인트 감소함.
- 교육정도별 전년대비 실업자(실업률)는 중졸 이하 6천명(2.6%, 0.1%포인트), 고졸 12천명(4.6%, 0.1%포인트)에서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은 실업자는 9천명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하여 3.4%를 기록함.
- 2005년 전체 실업자 887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42천명으로 전년 대비 11천명 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45천명으로 38천명 증가함.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2005		2005	200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752 (3.3)	818 (3.6)	860 (3.7)	842 (3.6)	899 (3.8)	887 (3.7)	827 (3.5)	827 (3.5)
15~29세	361 (7.0)	401 (8.0)	412 (8.3)	400 (8.1)	444 (8.9)	387 (8.0)	353 (7.5)	376 (7.9)
30~39세	186 (2.9)	190 (3.0)	196 (3.1)	201 (3.2)	209 (3.3)	210 (3.3)	209 (3.3)	199 (3.1)
40~49세	119 (2.0)	135 (2.2)	147 (2.3)	141 (2.2)	142 (2.2)	165 (2.5)	152 (2.3)	141 (2.2)
50~59세	61 (1.9)	70 (2.2)	78 (2.3)	78 (2.2)	83 (2.4)	93 (2.5)	87 (2.3)	86 (2.3)
60세이상	24 (1.1)	22 (1.0)	27 (1.2)	23 (1.0)	21 (1.0)	32 (1.3)	27 (1.1)	24 (1.1)
중졸이하	148 (2.3)	132 (2.2)	148 (2.5)	144 (2.4)	143 (2.5)	154 (2.6)	136 (2.4)	133 (2.4)
고 졸	380 (3.7)	432 (4.3)	460 (4.5)	478 (4.7)	536 (5.2)	472 (4.6)	450 (4.4)	458 (4.5)
대졸이상	224 (3.7)	253 (3.6)	252 (3.5)	220 (3.0)	221 (3.0)	261 (3.4)	241 (3.1)	236 (3.0)
신규실업자	46	72	53	40	53	42	34	43
전직실업자	705	746	807	803	846	845	793	784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12월 고용동향』, 2006. 1.

임금 동향

◆ 2005년 10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

○ 2005년 10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298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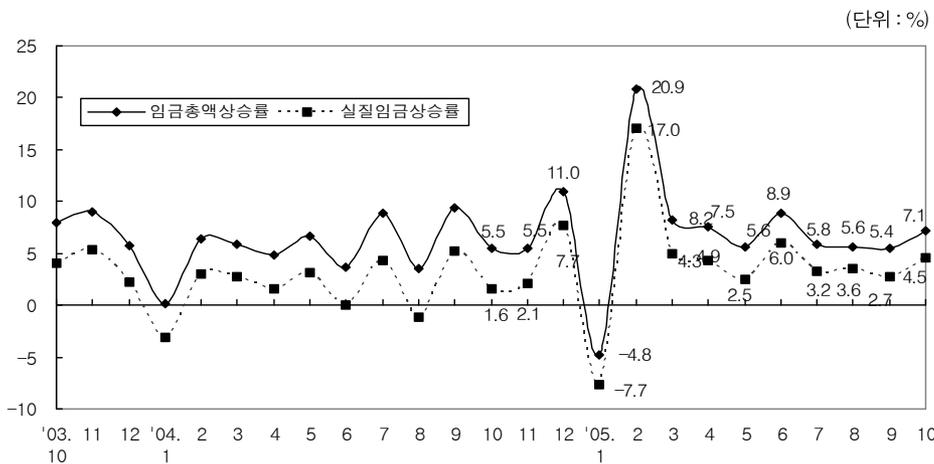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5.5%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임.
- 1~10월의 임금총액은 2,35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상승
- 2005년 10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액급여가 7.5%, 초과급여가 8.4%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 산업별로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소매

업 임금이 전년동기에 비해 11.0%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사업체 규모별로는 5~9인 규모 사업체에서 8.5% 상승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실질임금은 4.5% 상승

- 2005년 10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4.5% 상승함.
- 1~10월의 실질임금은 3.9% 상승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함.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0월	
임금총액	2,255 (6.0)	2,185 (3.9)	2,115 (5.0)	2,324 (7.3)	2,399 (7.7)	2,348 (7.5)	2,272 (7.4)	2,454 (5.6)	2,298 (7.1)	2,352 (6.8)
정액급여	1,636 (6.8)	1,599 (7.0)	1,613 (6.6)	1,643 (6.9)	1,690 (6.7)	1,726 (8.0)	1,734 (7.6)	1,761 (7.2)	1,765 (6.8)	1,743 (7.5)
초과급여	137 (1.7)	132 (3.1)	138 (2.5)	137 (2.5)	143 (-1.0)	142 (7.8)	151 (8.9)	147 (7.9)	163 (10.0)	148 (8.4)
특별급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387 (6.2)	545 (0.2)	370 (7.6)	461 (4.0)
실질임금지수	117.9 (2.3)	115.5 (0.6)	111.1 (1.6)	120.5 (2.9)	124.5 (4.1)	120.3 (4.2)	115.8 (4.3)	124.4 (3.2)	116.0 (4.5)	119.8 (3.9)
소비자물가지수	114.7 (3.6)	113.4 (3.3)	114.2 (3.3)	115.6 (4.3)	115.5 (3.4)	117.0 (3.2)	117.6 (3.0)	118.3 (2.3)	118.8 (2.7)	117.8 (2.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협약임금 인상률 하락, 진도율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5%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12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7%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2%보다 0.5%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8%로 전년동기의 5.3%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공공부문도 2.9%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3.4%보다 0.5%포인트 하락
- 전년보다 협약임금 인상률이 낮은 것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임금인상률을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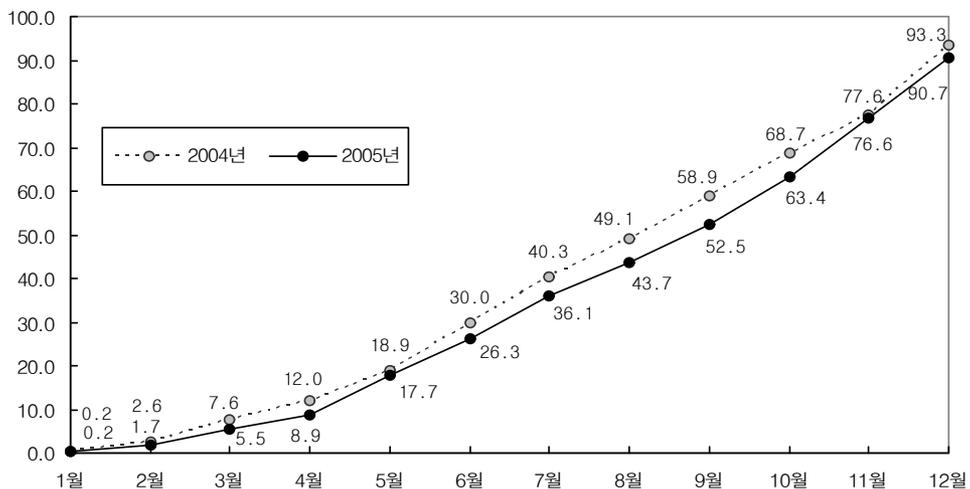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5,650 (5,514)	90.7 (93.3)	4.7 (5.2)
민간부문	6,024 (5,727)	5,488 (5,360)	91.1 (93.6)	4.8 (5.3)
공공부문	204 (182)	162 (154)	79.4 (84.6)	2.9 (3.4)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8〕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12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5,650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93.3%)보다 낮은 90.7%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91.1%로 6,024개소 중 5,488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162개소가 타결되어 79.4%의 진도율을 기록